

[1] 성당(기도소)은 그 이름이 말해 주는 것같이 되어야 하며, 다른 어떤 일을 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보관하지도 말 것이다. [2] 하느님의 일이 끝나면 모든 이들은 완전한 침묵 가운데 나가며, 하느님께 대한 공경심을 가질 것이다. [3] 특별히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형제가 있으면 다른 형제는 무례한 행동으로 그를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.

[4] 그러나 만일 다른 시간에라도 어떤 사람이 홀로 가만히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들어가 기도할 것이나, 큰 소리로 하지 말고 눈물과 마음의 지향(志向)을 가지고 할 것이다. [5] 그러므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일이 끝난 후에 성당에 머무르기를 허락하지 말 것이니, 이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.